

1. 길냥이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? (“예” -> 1-1, “아니오” -> 1-2)

애정과 관심은 줘어도 도움을 준 적은 없네요^^

1-1

- 1) 동기는 무엇이었나요?
- 2) 어떻게 도와주었나요?
- 3) 자발적인 도움이었나요?
- 4) 주기적인 도움이었는지, 일회성이었는지요?
- 5)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있었는지요? 어떤 문제였나요?
- 6) 문제를 해결하였나요? 어떻게 해결하였나요?

1-2

- 1)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?

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음. 그냥 시도 자체를 왜 한 적이 없음. 고양이들이 자기를 보면 도망가서... 어디에 밥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고,, 자기 사는데는 잔디밭에 고양이 한마리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밥을 주지 말라고 써있었음. 길냥이었는데,,, 오면 시끄러우니까 주지 말라고 한 듯

한번은 펜션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옴. 근데 이거를 줘도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어떤 음식을 줘도 되고 안되는지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망설이다 결국 안줌..

- 2)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요?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?

당연. 고양이를 봤는데 뭔가 원하는 눈빛이 느껴질 때. 고양이가 나에게 와서 애교를 부릴 때...

- 3)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요?

일단 밥을 주고 싶다,

한번은 고양이 밥을 산 적이 있다. 다이소에서. 고양이를 언제 볼지도 모르고 맨날 챙기고 다닐 수 없으니 하나를 사놓고 고양이를 만나면 좋아하겠지 생각한적 있는데 챙기고 다닐 수 없어서 집에 두고 다니다 버림...

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, 그것이 우리집 근처라면 챙겨줄 의향이 있음. 멀리까지 가서 줄 열정은 없다. 만약 내가 다니는 동선에 있으면 줄 것 같다.

그리고 애정과 관심

2. 집냥이/길냥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? (“많이” -> 1-1, “적음” -> 1-2)

2-1

- 1)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?
- 2)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요?

2-2

- 1)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?

고양이가 경계심을 느껴하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. 거리를 유지한다. 만약에 개냥이면 몰라도 사람을 경계하는데, 가까이 다가가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.

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, 먹으면 안되는지 정확히 파악

3. 길냥이들을 돌보는 커뮤니티를 들어보거나,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?

(“예” -> 1-1, “아니오” -> 1-2)

3-1

1) 어떤 커뮤니티인가요?

들어본적있음. 연남심. 서울숲에 가면 고양이집이 지어져 있어서 풀숲에 고양이집이 있고 밥통이 있음. ‘서울숲고양이들’ 서울숲 길냥이들을 위한건데 정확히 그걸 운영하는 단체는 잘 모름.

2) 그 커뮤니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이유는?

좋다고 생각. ㄷ그런 커뮤니티로 인해 고양이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. 중성화같은 문제도 혼자서는 못하는 것.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모금도 되고, 임보처가 필요하면 가능한 사람들이 이를 도와줄 수도 있고, 입양을 보낼 때도 고양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커뮤니티에 들어갈테니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음. 커뮤니티가 없으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.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.

3-2

1)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이유는?

4.

1) (프로젝트 설명 후)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? 그 이유는?

귀엽다...

할 것 같다. 고양이를 좋아하니까. 도움을 주고 싶은데, 사전지식이 생기면 고양이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.

2)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,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

중성화에 대한 모금은 약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. 필요하긴 하지만 위태롭고 긴급한 건 아니니, 큰 병에 걸린 경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성화까지는 잘 모르겠다...

배식소를 아무데나 만들어도 되는건지. 우리 아파트 앞처럼 건물 앞에 만들면 경비아저씨가 치울수도 있으니 정보의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.

비전문가가 잘못된 위치, 좋지 않은 위치에 (고양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) 아무데나 만들게 되면 고양이의 건강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피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아무나 배식소를 설치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.